

## 브라질의 2006년도 수출입동향 분석

1. 2006년 중 사상 최대 무역규모 기록
2. 무역수지 동향
3. 수출동향
4. 수입동향
5. 시사점

### 1. 2006년 중 사상 최대 무역규모 기록

- 브라질은 2006년 중 수출 1,375억 달러, 수입 914억 달러, 총 2,289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기록하였는데, 동 규모는 룰라대통령 집권 1기 직전연도인 2002년도에 비해 112.7%나 증가한 규모로서 브라질 사상 최대규모임.

<표 1> 브라질의 연도별 무역규모 추이

(단위: US\$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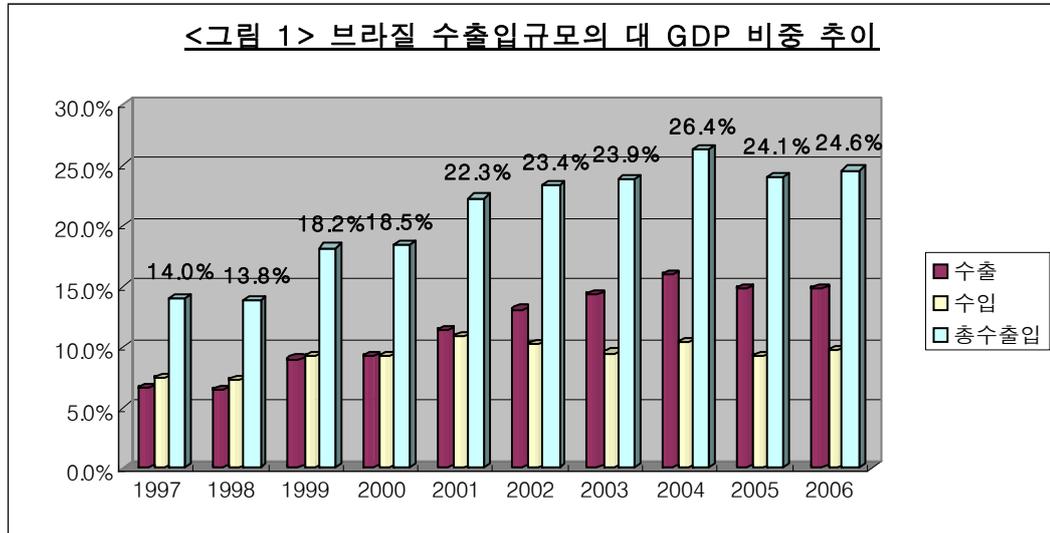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sup>P</sup>
무역규모	107,602	121,374	159,310	191,914	228,866
(증가율)	-5.4%	12.8%	31.3%	20.5%	19.3%
수출	60,362	73,084	96,475	118,308	137,470
(증가율)	3.7%	21.1%	32.0%	22.6%	16.2%
수입	47,240	48,290	62,835	73,606	91,396
(증가율)	-15.0%	2.2%	30.1%	17.1%	24.2%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07. 2.

- WTO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 수출의 세계 총수출액 대비 비중은 1999년도 0.860%를 저점으로 계속 높아져 2005년도에 1.161%에 달하면서 제 23위 수출대국이 되었으며, 수입비중은 2003년도 0.615%를 저점으로 계속 높아져 2005년도에 0.684%로 세계 제 27위의 수입국이 되었음<sup>1)</sup>.

1) 2006년에는 동 비중이 1.173% 및 0.739%로 더욱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5년 브라질 무역규모는 전세계의 0.93%로 제26위를 차지하였음.

- 이와 같이 브라질의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브라질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은 1998년 13.82%에서 2006년 24.63%로 약 두 배가 높아졌음.



자료: SECEX/MDIC

## 2. 무역수지 동향

□ 2003~2006년 중 누적무역수지흑자 1,492억 달러

- 브라질의 무역수지는 1995~2000년 중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2001년도에 U\$2,650백만의 소폭 흑자로 전환 한 이후, 2002~2006년 중 131억 달러에서 461억 달러로 251.1%나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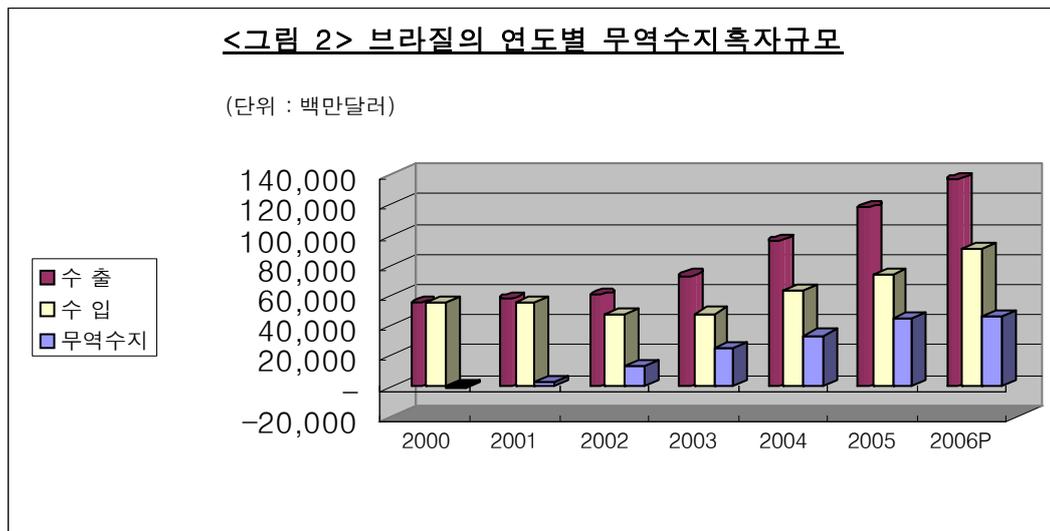
**<표 2> 브라질의 연도별 무역수지 동향**

(단위: U\$ 백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sup>P</sup>
경상수지	-7,718	4,177	11,711	13,985	13,528
무역수지	13,121	24,794	33,641	44,703	46,074
수출	60,362	73,084	96,475	118,308	137,470
(증가율)	3.7%	21.1%	32.0%	22.6%	16.2%
수입	47,240	48,290	62,835	73,606	91,396
(증가율)	-15.0%	2.2%	30.1%	17.1%	24.2%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07. 2.

- 특히, 룰라 대통령 집권 1기인 2003~2006년 중 누적무역수지흑자는 1,492억 달러에 달하여 같은 기간 중 누적경상수지흑자 434억 달러를 가능케 하였으며, 아울러, 브라질의 총외채 감소 및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에 절대적 역할을 하였음.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07. 2.

#### □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 브라질은 2006년 중 무역수지가 대체적으로 세계 전 지역에서 고르게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2005년 대비 3.1%가 증가하였음.
- 지역별 무역수지 증가율 : 라틴아메리카(9.0%), EU(22.8%), 동구(11.2%) 및 중동(45.5%)지역에서 흑자가 큰 폭 증가하였으나, 아시아지역에서는 2005년 흑자에서 2006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주로 원유수입 지속에 따라 계속 적자를 보였음.
- 지역별 무역수지흑자규모
  - 라틴아메리카 : 전통적으로 흑자가 가장 큰 지역인데, 2006년 흑자 증가폭은 12.4억 달러에 달하였음. 베네수엘라에 대한 흑자는 10.0억 달러('05년 19.6억 달러에서 '06년 29.6억 달러로 증가)가 증가하였으며, 콜롬비아에 대한 흑자는 6.1억 달러가 증가하였음.

<표 3> 주요 지역별 브라질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U\$ 백만)

지역	2005			2006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라틴아메리카	25,428	11,617	13,812	31,382	16,327	15,055
아시아	18,552	16,870	1,682	20,793	22,886	-2,094
미국	22,741	12,853	9,889	24,679	14,849	9,830
캐나다	1,944	1,019	925	2,275	1,193	1,082
EU	26,493	18,154	8,340	30,374	20,135	10,239
동구	3,861	1,174	2,687	4,496	1,508	2,988
중동	4,286	2,510	1,777	5,745	3,160	2,585
아프리카	5,977	6,662	-685	7,449	8,089	-640
기타	9,025	2,748	6,126	10,277	3,248	7,029
전체	118,308	73,606	44,703	137,470	91,396	46,074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07. 2.

- 아시아 : 2006년 중 20.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2005년 16.8억 달러 흑자에서 37.8억 달러의 수지가 악화되었음. 특히, 한국에 대한 적자는 2005년 4.3억 달러에서 2006년 11.4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흑자는 같은 기간 중 14.8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대만에 대한 적자는 4.9억 달러가 확대되었음.
- EU 및 동구 : 2005년 대비 19.0억 달러의 흑자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각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고르게 개선된 가운데, 네덜란드(2.6억 달러), 러시아(3.1억 달러), 벨기에(6.1억 달러), 이탈리아(3.1억 달러) 등에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음.
- 중동 : 2006년 중 8.1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가 증가하여 증가율로는 최고를 기록하였음. 특히, 일방적 수출국가인 이란에 대한 흑자는 2006년 중 수출이 원당, 소고기, 콩, 정제설탕 등을 중심으로 61.9%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흑자 증가 폭이 5.7억 달러(2005년 9.7억 달러에서 2006년 15.4억 달러로 59.2% 증가)에 달하였음.
- 아프리카 :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5년도 6.8억 달러 적자에 이

어 2006년에도 6.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주요 변화를 보면, 2005년에 비해 알제리에 대한 적자가 원유수입 감소에 따라 9.3억 달러 축소되고, 이집트에 대한 흑자가 원당 및 소고기 수출증가에 따라 4.7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나, 원유수입이 대폭 늘어난 나이지리아 및 리비아에 대한 수지악화가 각각 8.1억 달러 및 2.6억 달러에 달하였음.

### 3. 수출동향

□ 2003~2006년 중 연평균 23.0% 증가로 사상 최고의 증가율 기록

- 브라질의 수출은 1970년대에 연평균 22.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이후, 1980년대 4.5%에서 1991~1995년 중 평균 8.2%로 다소 회복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후에는 1998~1999년 중 마이너스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2002년까지 평균적으로 한 자릿수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3~2006년 중에는 연평균 23.0%의 역사적인 고성장세를 보였음.
- 특이점은 동 기간 중의 국제 1차 상품 시세 호황에도 불구하고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29% 수준에서 안정되어, 상대적으로 반제품 및 완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과거 1차 상품 의존 국가라는 이미지가 불식되게 되었음.

<표 4> 브라질의 수출추이 및 수출구조의 변화

연도	총수출			부문별 비중(%)		
	금액(U\$백만)	연(평균)증가율		1차 상품	반제품	완제품
1970	2,738	1964~1970	11.4%	74.8	9.1	15.2
1980	20,132	1971~1980	22.5%	42.2	11.7	44.8
1990	31,414	1981~1990	4.5%	27.8	16.3	54.2
1995	46,506	1991~1995	8.2%	23.6	19.7	55.0
2000	55,086	1996~2000	3.3%	22.8	15.4	59.0
2001	58,223	2001	5.7%	26.4	14.2	56.5
2002	60,362	2002	3.7%	28.1	14.9	54.7
2003	73,084	2003	21.1%	29.0	15.0	54.3
2004	96,475	2004	32.0%	29.6	13.9	54.9
2005	118,308	2005	22.6%	29.3	13.5	57.2
2006	137,470	2006	16.2%	29.3	14.2	56.5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더욱이, 최근에는 수출단가 상승률 보다 물량증가율이 공산품에서 더 높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6년 1~11월 중 브라질의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 15.9% 중 단가상승이 4.2%, 물량증가가 11.7%인데, 1차산품의 단가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공산품은 단가상승률보다 물량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조업부문의 산업 활동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음.

<표 5> 2006년 중 부문별 수출의 단가상승률 및 물량증가율  
(2006.1~11/2005.1~11)

구 분	1차 산품	반제품	완제품	전체
단가상승율(%)	6.4	3.7	3.6	4.2
물량증가율(%)	10.0	17.0	11.0	11.7

자료: FUNCEX

- 수출상품의 기술수준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비록 최근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하위기술부문 수출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수출상품이 아직은 하위기술 부문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6> 수출품의 기술수준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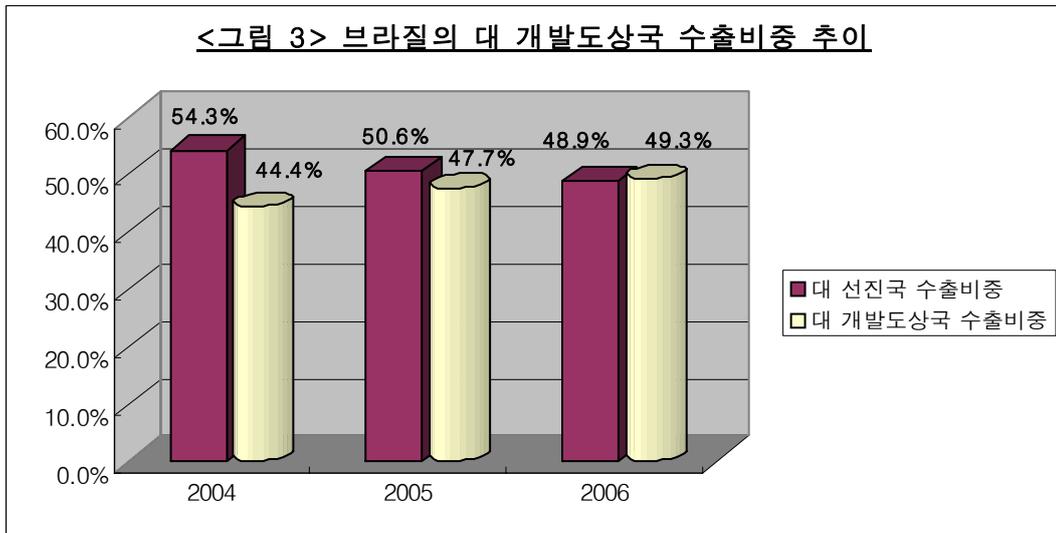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하이테크로지제품	8.6	9.3	8.7
중고급기술제품	28.9	30.8	30.2
중하위기술제품	24.4	24.2	25.4
하위기술제품	38.1	35.7	35.7

자료: SECEX/MDIC

□ 대 개발도상국 수출 급속 증가

- 대 개도국 수출비중 : 2006년에는 총 1,375억불의 수출액 중 개발도상국 앞 수출이 678억 달러로 전체의 49.3%를 차지함으로써 선진국앞 672억 달러(수출비중 48.9%)를 추월하였음(총 수출액 중 1.8%는 기내판매 등 기타 부문임).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o 대 개도국 수출증가율 : 2006년 중 브라질 수출은 대 개발도상국 수출증가율이 전체적으로 20.2%에 달해 선진국의 12.2%를 크게 앞섰음.

**<표 7> 2006년 브라질의 주요 국가별 수출**

(US\$ 백만, %)

순위	개발도상국	수출금액	수출증가율 ('06/'05)	순위	선진국	수출금액	수출증가율 ('06/'05)
1위	아르헨티나	11,714	19.1	1위	미국	24,431	9.4
2위	중국	8,400	23.9	2위	네덜란드	5,744	9.6
3위	멕시코	4,440	10.1	3위	독일	5,675	13.9
4위	칠레	3,896	8.7	4위	일본	3,884	12.6
5위	베네수엘라	3,555	61.7	5위	이태리	3,829	19.7
6위	러시아	3,443	19.0	6위	벨기에	2,994	40.8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o 브라질의 개발도상국앞 수출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 i)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경제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1차 상품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고,
  - ii) 선진국들의 경우 브라질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1차 상품에 대해 내수시장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일례로, 콩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관세 및 위생 절차에 대한 장벽이 높고, 국내 관련

- 업체들의 압력으로 수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iii) 헤알화 강세로 인해 대 선진국 완제품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8> 2005년 대비 2006년 중의 부문별 수출증가율(%)

구분	1차산품	반제품	완제품	전체
선진국	13.5	16.8	10.6	12.2
개발도상국	19.4	32.4	18.5	20.2
전체	16.0	22.3	14.7	16.2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o 특히, 2006년도에는 이란,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등 해외시장개척이 활발해짐에 따라, 브라질의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통한 수출기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9> 2006년 중 주요 신규 수출대상국

수출대상국	2006 수출액(U\$백만)	수출증가율('06/'05)
이란	1,567.9	61.9%
앙골라	836.0	60.8%
방글라데시	275.1	83.8%
사이프러스	172.4	62.5%
베트남	129.0	109.3%
스리랑카	75.9	102.4%

자료: SECEX/MDIC

□ 주요 수출품목의 2006년 수출액 및 2005년 대비 수출증가율

- o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목별 2006년 중 수출실적을 보면, 원유, 원당, 소고기, 철광석, 자동차엔진 및 부품 등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 16.2%를 크게 상회하였음.

\* 브라질산 원유는 주로 중질유로서 경질유를 혼합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2006년 중 원유(중질유) 수출이 전년대비 65.6% 증가한 68.9억 달러인 반면, 원유(경질유) 수입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90.9억 달러에 달하였음.

<표 10> 주요 품목의 2006년 수출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품목	수출액 (U\$백만)	증가율 (%)	주요 수출대상국(비중, %)
철광석	8,949	22.6	중국(29.4), 일본(13.1), 독일(9.3), 이탈리아
원유	6,894	65.6	미국(28.4), 칠레(16.6), 중국(12.1), 바하마
콩	5,633	6.0	중국(42.9), 네덜란드(15.1), 스페인(7.6)
승용차	4,597	4.6	아르헨티나(32.2), 멕시코(28.6), 독일(12.3)
원당	3,936	65.2	러시아(32.0), 이집트(7.7), 이란(7.6)
항공기	3,241	2.3	미국(37.2), 캐나다(12.7), 사우디(9.9)
소고기	3,134	29.6	러시아(23.7), 이집트(11.6), 네덜란드(8.1)
자동차/트랙터 부품	2,953	19.9	미국(26.5), 아르헨티나(25.2), 멕시코(10.1)
원두커피	2,928	16.4	독일(21.4), 미국(18.5), 이탈리아(10.7)
닭고기	2,923	-12.1	일본(16.6), 사우디(12.9), 홍콩(8.6)
통신기기 및 부품	2,897	6.1	아르헨티나(28.2), 베네수엘라(22.6), 미국
자동차엔진 및 부품	2,790	20.6	미국(37.1), 아르헨티나(14.1), 영국(10.8)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o 특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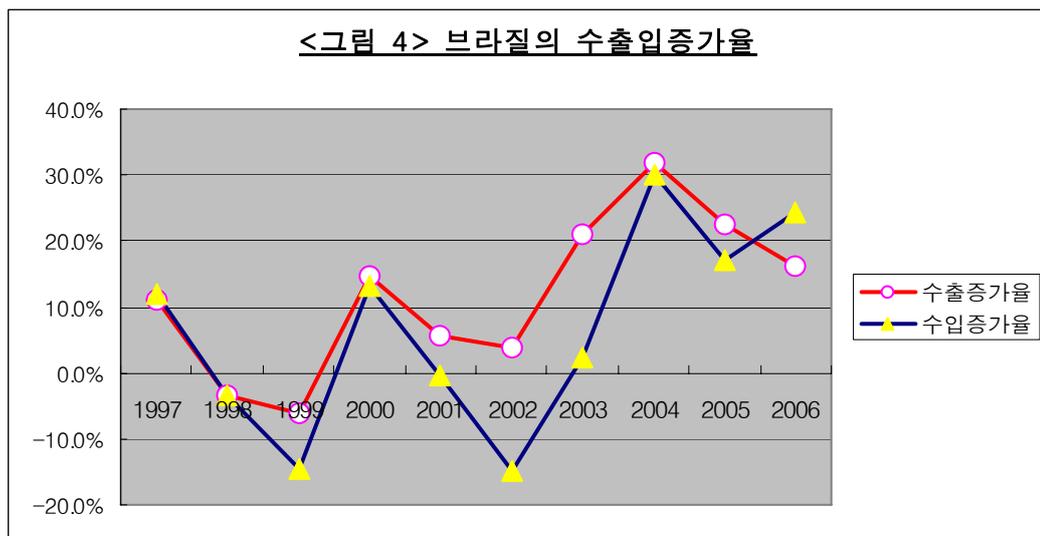
- 철광석은 22.6%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강철판(U\$2,718백만 수출)은 14.1%, 철강반제품(U\$2,277백만 수출)은 △1.2%, 고철(U\$1,637백만 수출)은 △10.0%의 증가율을 보였음.
- 원당수출이 65.2% 증가한 가운데, 정제설탕 또한 U\$2,231백만으로 45.2%가 증가하였음. 특히, 에탄올은 U\$1,605백만을 수출하여 109.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반면, 콩은 6.0%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콩기름 및 추출물(U\$2,419백만 수출)은 15.6%가 감소하였음.
- 브라질은 2006년도에 디젤유 중심으로 연료유 수입이 U\$1,826백만으로 76.4%가 증가하였는데, 여타 연료유 수출 또한 U\$2,252 백만으로 43.2%가 증가하였음.
- 운수장비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수출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미국 등을 대상으로 U\$1,869 백만을 수출하여 11.2%의 증가세를 보였음.

- 한편, 헤알화 강세 등으로 경공업제품은 신발수출이 U\$1,957백만으로 1.1% 감소하고, 담배수출이 U\$1,694백만으로 2.0% 증가에 머무는 등 부진을 보였음. 다만, 브라질에서 풍부한 가죽수출은 U\$1,872백만으로 34.3%가 증가하였음.
- 한국에 대한 수출은 24대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이 10대 수출대상국 안에 랭크되어 있는데, 특히, 철광석(6위), 철강반제품(2위), 원유(7위), 콩(9위)의 수출이 많았으며, 원유(64.7%), 콩(23.2%), 펄프(36.5%), 화물차(136.9%)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반면, 철광석(-4.0%), 철강반제품(-25.7%) 및 U\$34백만을 수출한 에탄올(-47.3%) 등은 감소하였음.

#### 4. 수입동향

□ 2006년 중 24.2% 증가로 수출증가율 16.2%를 크게 상회

- 브라질의 수입증가율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2001년 26억 달러의 흑자전환 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무역수지흑자가 2006년에는 전년대비 3.1%의 소폭 증가에 머물게 되었음. 수입증가율은 브라질의 GDP 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때 마다 높았었는데, 2006년도에는 무엇보다 헤알화 강세가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07.2.

□ 지역별 수입동향 : 아시아 및 자원보유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o 경제성장 호조 및 헤알화 평가절상과 함께 브라질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4년도 이후의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증가 추이를 보면, 중국·한국·대만 등 중저가 공산품을 수출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구리 등 필수 자원을 수출하는 칠레 등 자원보유국들 및 경질유 산유국들로부터의 수입이 급증추세를 보인 반면, 선진국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음.

i) 아시아 지역 : 2005년 대비 2006년 수입증가율을 보면 평균 35.7%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50.4%), 한국(34.5%), 대만(33.3%) 등이 전년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싱가포르(45.7%), 말레이시아(41.5%), 태국(41.2%)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표 11> 대 아시아 주요국 수입실적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US\$백만, %)

연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2006	1,188 (45.7%)	901 (41.5%)	737 (41.2%)	664 (72.2%)	650 (42.5%)	75.6 (58.2%)
2005	815 (91.7%)	637 (23.6%)	522 (18.6%)	386 (14.3%)	456 (23.3%)	47.8 (49.7%)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ii) 라틴아메리카 지역 : 2006년 중 2005년 대비 40.5%나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아르헨티나(30.1%) 및 칠레(67.9%)가 전년도 보다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볼리비아, 멕시코, 페루 등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특히 높았음.

<표 12> 대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수입실적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US\$백만, %)

연도	볼리비아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2006	1,448 (46.4%)	1,310 (55.2%)	789 (71.8%)	618 (25.2%)	592 (131.1%)	248 (80.0%)
2005	990 (38.7%)	844 (19.9%)	458 (31.2%)	494 (-5.6%)	256 (28.3%)	138 (-3.8%)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iii) 신흥 수입국가 : 주로 원유수입과 관련이 있는데, 브라질은 2006년 중 앙골라 U\$456백만, 콩고 U\$281백만, 리비아 U\$176백만, 콩고인민민주 공화국 U\$128백만씩 원유를 각각 수입하였으며, U.A.E.로부터는 2006년 중 디젤유 U\$255백만 및 나프타 U\$27백만을 수입하였음.

<표 13> 주요 신흥 수입대상국가들로부터의 수입실적

(단위: U\$백만)

연도	앙골라	U.A.E.	콩고	리비아	콩고인민민주공화국
2006	464.4	347.0	291.2	288.8	132.7
2005	0.1	76.9	66.1	34.5	0.2

(주) 1억 달러이상 수입 국가 대상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o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04년 18.4%에서 2006년 16.2%로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2위 아르헨티나의 8.8%를 크게 앞서고 있음.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2004년도 4위에서 2006년 3위로 부상하였고, 한국은 같은 기간 10위에서 7위로, 대만은 15위에서 12위로 각각 부상하였음.

<표 14> 주요 수입대상국별 수입 추이

(단위: U\$백만, %)

국가	2004		2005		2006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미국	11,356	20.5	12,666	11.5	14,850	16.5
아르헨티나	5,569	19.2	6,241	12.0	8,057	30.1
중국	3,710	72.7	5,354	44.3	7,989	50.4
독일	5,071	20.5	6,144	21.1	6,503	6.7
나이지리아	3,503	130.8	2,652	-24.2	3,885	47.7
일본	2,868	13.8	3,405	18.7	3,839	13.7
한국	1,729	60.3	2,326	34.5	3,106	34.5
칠레	1,398	69.3	1,746	24.8	2,908	67.9
프랑스	2,292	29.4	2,699	17.7	2,837	5.9
이탈리아	2,053	18.2	2,276	10.8	2,570	13.8
알제리	1,944	73.6	2,830	45.5	1,976	-29.6
대만	981	51.8	1,323	34.8	1,749	33.3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2003~2006년 중 수입증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93.5%가 증가한 가운데, 12대 수입대상국 중에서는 중국(271.9%), 칠레(252.2%), 한국(188.0%), 대만(170.6%) 등이 특히 높았으며, 지역별로도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156.5%를 기록하여 라틴아메리카지역의 98.9%를 상회하였음.

<표 15> 주요 지역별 수입 추이

(단위: US\$백만, %)

지역	2004		2005		2006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라틴아메리카	10,026	22.1	11,616	15.8	16,327	40.5
아시아	12,279	37.6	16,870	37.3	22,886	35.7
미국	11,530	18.5	12,852	11.4	14,849	15.5
캐나다	866	15.4	1,019	17.6	1,193	17.1
EU	15,928	22.3	18,145	13.9	20,135	10.9
동구	1,324	55.3	1,173	-11.4	1,508	28.4
중동	2,311	42.7	2,509	8.5	3,160	25.6
아프리카	6,185	88.3	6,661	7.6	8,089	21.4
기타	2,385	24.4	2,760	15.7	3,248	18.2
전체	62,834	30.1	73,605	17.1	91,396	24.2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소비부문별 수입 동향

<표 16> 소비부문별 수입 증가율 추이(%)

연도	소비재				원자재	연료 및 운활유	자본재	합계
	내구재		비내구재	소계				
	승용차	기타						
2000	-0.2	13.7	-5.3	0.6	18.2	49.3	0.2	13.3
2001	16.0	-5.7	-9.1	-4.0	-3.8	-1.3	8.8	-0.4
2002	-48.0	-15.8	-6.4	-17.3	-14.2	-0.6	-21.4	-15.0
2003	-20.8	3.4	-8.2	-6.3	10.1	5.6	-11.1	2.2
2004	0.9	41.8	17.7	23.9	29.8	56.5	17.3	30.0
2005	40.5	19.2	24.0	23.6	12.7	15.6	26.7	17.2
2006	133.7	34.0	29.9	41.4	19.9	27.5	22.9	24.2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07. 2.

- 수입이 급증세를 보인 최근 3년 간 브라질의 소비부문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이 해알화의 초강세와 경기호조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2006년에는 41.4%에 달하였음. 자본재는 2004~2005년 중 급증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평균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22.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부문별 수입비중은 2006년의 경우 원자재가 약 절반인 49.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재 20.7%, 연료 및 운할유 16.6%, 소비재 13.1%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음.

<표 17> 소비부문별 수입 비중 추이

연도	소비재				원자재	연료 및 운할유	자본재	합계
	내구재		비내구재	소계				
	승용차	기타						
2000	2.2	4.0	7.1	13.3	50.9	11.4	24.4	100.0
2001	2.5	3.8	6.6	12.9	49.2	11.3	26.6	100.0
2002	1.5	3.8	7.2	12.5	49.6	13.2	24.7	100.0
2003	1.2	3.8	6.5	11.5	53.5	13.6	21.4	100.0
2004	0.9	4.1	5.9	10.9	53.4	16.4	19.3	100.0
2005	1.1	4.2	6.2	11.5	51.4	16.2	20.9	100.0
2006	2.1	4.5	6.5	13.1	49.6	16.6	20.7	100.0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07. 2.

□ 주요 수입품목의 2006년 수입액 및 2005년 대비 수입증가율

- 2006년 중 수입증가율을 보면, 12대 수입품목 중에서는 승용차, 연료유, 천연가스, 통신기기, 의약품, 나프타 등의 수입증가율이 평균수입증가율 24.2%를 상회하였음.
- 12대 주요 수입품목 중 수입증가율이 특별히 높았던 품목은 승용차(133.8%), 연료유(76.4%), 통신기기부품(40.3%), 천연가스(62.3%) 등이며, 이 밖에, 24대 주요 수입품목 중에서는 U\$1,268백만을 수입한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37.2%) 및 U\$1,252백만을 수입한 컴퓨터주변기기(34.8%)의 수입증가율이 높았음.

- 특히, 구리 및 관련제품은 총 US\$2,283백만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116.6%가 증가하였으며, 이 밖에 전력설비/엔진(48.8%), 밀(52.3%) 등의 수입 증가율도 높았음.

\* 구리 등의 수입은 칠레(수입비중 80.0%), 페루(수입비중 11.6%) 및 아르헨티나(수입비중 6.1%)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2006년 중 각 115.8%, 73.4% 및 314.3%의 수입증가율을 보였음.

<표 18> 주요 품목의 2006년 수입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품목	수입액 (US\$백만)	증가율 (%)	주요 수입대상국(비중, %)
원유	9,087	18.4	나이지리아(41.1), 알제리(17.6), 사우디(16.1)
반도체 및 전자부품	2,912	15.2	한국(17.2), 대만(14.3), 중국(10.5), 싱가포르(10.5)
통신기기부품	2,833	40.3	중국(29.6), 한국(28.7), 싱가포르(12.9)
자동차·트랙터 부품	2,491	0.7	아르헨티나(17.1), 독일(16.4), 일본(15.5)
의약품	2,385	29.5	미국(23.7), 스위스(15.8), 독일(9.1)
승용차	1,914	133.8	아르헨티나(45.8), 멕시코(16.6), 독일(16.3)
연료유	1,826	76.4	인도(39.8), U.A.E.(14.0), 미국(9.7)
나프타	1,769	26.8	아르헨티나(46.3), 알제리(18.4), 나이지리아(8.0)
석탄	1,487	13.9	호주(40.5), 미국(31.9), 캐나다(13.0)
복소/유황화합물	1,382	9.5	미국(26.1), 중국(11.2), 독일(11.0)
측정 및 검증 기계	1,329	7.6	미국(34.0), 독일(19.8), 일본(8.5)
천연가스	1,314	62.3	볼리비아(96.0), 아르헨티나(4.0)

자료: Ministerio do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2007.2.

- o 한국으로부터의 수입<sup>2)</sup>은 24대 품목 중 8개 품목이 10대 수입대상국 안에 랭크되었는데, 반도체 및 전자부품(1위), 통신기기부품(2위), 승용차(5위), 연료유(9위)의 수입이 많았으며, 특히, 통신기기부품(49.2%), 승용차(227.6%), 컴퓨터(79.9%)의 수입증가율이 높았음.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연료유(US\$52백만 상당)는 2006년도에 최초로 수입한 것임.

2)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1990년 브라질 시장개방 조치 이후 1991년 174백만 달러에서 1993년 449백만 달러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94년 7월 1일 브라질 신경제정책(해알 플랜)에 따른 고환율 정책,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에 따른 시장확대 및 경기회복에 힘입어 1994년 844백만 달러에서 1998년 1,792백만 달러로 급증한 바 있음. 그러나, 1998년 하반기 브라질 금융위기 이후 긴축금융정책 등에 따른 경기둔화 및 1999년 1월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로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2003년까지 감소세를 보여 2003년에는 1,137백만 달러에 머물렀음.

## 5. 시사점

- 브라질의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는 2003~2006년 중 누계가 1,492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브라질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 국가신용도<sup>3)</sup>를 해마다 끌어 올리게 하는 등 경제 전반에 활력 요소가 되고 있음.
  - 최근의 무역수지흑자는 1981년부터 1994년까지 14년간 지속된 1,491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 누계액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당시에는 초인플레이션과 극심한 환율 불안정 속에 총 380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보인 반면, 금번에는 저인플레이션, 환율 평가절상, 외채 감축 등 경제의 구조적 개선 속에 434억 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수반한 점이 크게 다름.
  - 브라질의 총 외채는 2002년 말 2,107억 달러에서 2006년 말 1,689억 달러로 418억 달러나 감소하게 되었으며, GDP 대비 순외채 비중은 같은 기간 35.9%에서 7.2%로 낮아지게 되었음.
  - 또한, 외환보유고는 많은 공공외채의 조기상환에도 불구하고 2002년 말 378억 달러에서 2006년 말 858억 달러로 급증<sup>4)</sup>하였으며, 동시에 긴축정책과 함께 외화유입 증대에 따른 헤알화의 급속한 평가절상<sup>5)</sup>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2년 12.53%에서 2006년 3.14%로 낮아지게 되었음.
-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11년간 계속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최근에도 2005년도 2.3% 저성장에 이어 2006년에도 2.6%의 매우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수출입동향에서 살펴 본 브라질 경제는 구조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 룰라 대통령 집권 1기인 2003~2006년 중 브라질의 무역규모는 2002년 대비 112.7%가 확대되어, 2005년 현재 전 세계에서 교역규모 26위의 무

3) Moody's의 경우, 브라질에 대한 신용도등급은 02년 8월 B2에서 '04년 9월 B1, '05년 10월 Ba3, '06년 8월 Ba2로 매년 상향조정되어 왔음.

4) 브라질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 말 858.4억 달러로 2005년 말의 538.0억 달러 대비 320.4억 달러가 증가한데 이어, 2007년 1월 말에는 910.9억 달러, 2월 15일 현재에는 967.4억 달러로 급증추세를 계속하여 중남미 최대 외환보유국임.

5) 브라질 헤알화의 대 미달러 환율은 2002년 말 3.5333에서 2007년 2월 15일 현재 2.0896으로 절상되었음.

역대국이 되었으며, 브라질의 GDP 대비 수출입의존도는 1998년 13.8%에서 2006년 24.6%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등 최근의 국가신용도 개선 추세와 함께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03~2006년 중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23.0%에 달하였는데, 과거와는 달리 국제원자재 시세 호조에 불구하고 1차 산품 수출의존도는 변화가 없는 반면, 완제품 수출증가율은 해알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으로 경공업 제품수출이 정체 내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높아졌음.
  - 수출품목별로는 2006년 대 개도국 수출비중이 선진국 비중을 추월하는 등 해외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운송장비업종 수출이 154.5억 달러에 달하고, 통신기기 수출이 2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수출품목도 다변화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체연료로서 각광 받고 있는 에탄올은 2006년 수출증가율이 109.6%에 달하였음.
  - 한편, 수입은 최근의 해알화 강세 및 금리인하 등에 따른 국내소비수요 증가 등으로 2006년에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증가율 16.2%를 상회하는 24.2%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저조한 GDP 성장률과는 달리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수입대상국별로는 자원부문을 제외하고는 주로 중저가 공산품을 수출하는 중국(50.4% 증가), 홍콩(72.2% 증가) 등 아시아 지역에서 35.7%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중남미지역에서는 멕시코로부터 반도체 및 전자부품(101.8%), 사무용기기(25.4%), 컴퓨터주변기기(64.1%) 등의 수입증가율이 높은 점과, 승용차를 최초로 3.2억 달러 상당 수입한 점이 특이함.
    - 수입품목별로는 자원부문 외에 승용차, 통신기기부품, 나프타, 사무용기기,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및 전자부품, 발전설비 등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공산품 수출국에게는 더욱 유망한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향후 전망과 관련, 2003년 이후의 급속한 해알화 평가절상으로 2004년을 정점으로 수출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2007년부터는 무역수지흑자규모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음.

- 수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세계경기 호황에 따른 1차 상품 등의 수출단가 인상 및 수출물량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장려정책 및 기업들의 수출능력 향상 등으로 높은 성장세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시 1차 상품의 국제시세 하락 및 수출물량 감소는 물론 지속적인 헤알화 평가절상추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반면, 수입의 경우는 국내 금리인하추세, 정부의 강력한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 외국인투자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방침, 국가신용도의 지속적인 상향조정 전망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국내 경제가 향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입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과 같은 공산품 위주의 수출국가의 경우에는 수출 및 투자 대상 국가로서의 브라질에 대한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음.

(자료제공: 상파울루 사무소)

문의: 전문연구원 양행민 (☎3779-6676)  
E-mail: haengmin@koreaexim.go.kr